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 서비스’ 본격 추진

100세 돌봄 관리자 38명 위촉... 매주 안심 경로당 파견

맞춤형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치매 환자 가정도 방문

나주시가 초고령 사회의 난제인 치매 예방·극복을 위해 마을 경로당 중심의 ‘나주형 치매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치매 환자들이 물리적·심리적으로 고립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거주 마을에서 주민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주시는 전남 시청사 이화실에서 체계적인 치매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100세 돌봄 관리자’ 38명을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돌봄 관리자들은 노인 돌봄, 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분야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치매 관리 최전선인 ‘100



세 안심 경로당에 파견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치매 사각지대 발굴과 수요·응답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앞서 나주시는 치매 고위험군에 해

당하는 60세 이상 거주 비율이 높은 마을 경로당 180곳(농촌형 172곳·도시형 8곳)을 ‘100세 안심 경로당’으로 지정·운영 중이다.

경로당 한 곳당 10명씩을 돌봄 대

상자로 선정해 총 1800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돌봄 관리자들은 매주 안심 경로당을 찾아 대상자별 맞춤형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매달 1회 치매 환자 가정에도 방문해 대상자 징후와 안부를 살펴 치매 조기 예방에 힘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치매는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병 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매 환자들의 증세가 더 악화되지 않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나주시는 민선8기 출범 후만 60세 이상 시민의 선제적인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하고 추적·진단·치료로 이어지는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주=주철환 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마약 범죄 근절 캠페인’ 동참

강진원 강진군수가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 7일, ‘출구 없는 미로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쓰여진 팻말을 들고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해 추진 중으로, 최근 마약 사건이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며 사회적인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전 국민에게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기 위해 시작됐다.

캠페인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연말까지 진행되며, 촬영 영상은 SNS나 언론 등에 배포된다. 강 군수는 권석진 강진경찰서장



의 지목을 받아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문구를 담은 피켓과 함께 인증샷을 촬영했으며, 다음 주자로 김보미 강진군의회의장과 이병삼 강진교육지원청장을 지목했다.

강 군수는 “최근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마약에 노출돼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광양, 6월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장 수여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발전 유공 시민 4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은 정인화 광양시장과 시민 수상자, 축하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합창단 공연, 표창장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 행사로 광양시립합창단에서 광양시민들이 힘찬 6월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

표창장 수여식에서 정 시장은 △창덕에비빌2차아파트 경로당 노점자회장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류하민 학생 △주담주담 가족 봉사단 스토아 수아 이자벨라 어린이 등 시민 4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순천시의회, 정례회 개최 10일간 결산 승인안 등 처리

순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까지 10일간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순천시에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최종 단계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연)의 심의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장영준 의원이 합리적 산출기초에 의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김영진 의원이 농협현장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나안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예산과 집행결과를 분석하고 예산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낭비를 개선사항 등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본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안 ‘2024년 새뜰마을 공모사업’ 2개소 선정

비금면 평림·암태면 도창마을... 총 40억원 확보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통해 행복한 마을발전 기대

신안군은 낙후된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 공모에 비금면 평림과 암태면 도창마을 2개소가 선정되어, 총 40억원(국비75%, 도비9%)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비금면 평림과 암태면 도창마을은 취약한 마을 여

건과 해풍으로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이다.

앞으로 마을안길포장, 배수로 정비, 안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담장정비,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개량, 재래식 화장실 정비 등, 실무협의를 통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마을의 정주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3월 흑산면 사리, 신의면 기동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2023년도 총 4개소 84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서비스 증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노후되고 취약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변화된 행복한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해남, 서울 14개 초등학교에 버 체험포 설치

“도시학교에서 친환경 쌀 키워요...” 학생참여 모내기

해남군 친환경쌀이 도시학교에서 자란다.

해남군은 서울시 학교급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친환경 해남쌀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재 14개 초등학교에 체험포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체험포는 친환경쌀 공급업체인 해남 인우농조합법인과 팜광황도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서 직접 모를 가져와 대형 고무 화분에 어린이들이 직접 모내기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접 심는 벼는 가을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주기, 거름주기 등 친환경 농법으로 정성스럽게 관리하게 된다. 수확기에 다시 한번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키운 벼를 수확하고 탈곡·도정하는 과정을 통해 농사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벼

수확 체험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체험포 운영은 학교급식으로 해남의 친환경 쌀을 먹고 있는 학생들이 벼의 재배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학교급식 확대를 위한 친환경 해남 쌀 홍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광양시의회, 포스코 상생 약속 모니터링 강화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 지역 상생협력 입장문...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 요구

광양시의회가 8일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 지역 상생협력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의하면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포스코가 상생 약속을 이행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알리며, 포스코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와 ▲포스코는 자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 ▲포스코는 지역 납품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 ▲포스코는 기존 협력업체가 진행하던 사회공헌 활동을 승계하여 체계적 진행 ▲포스코는 향후 자회사 직원 선발 시 지역인재로 우선 채용 등 사항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3월, 포스코는 광양과 포항에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제철 공정 단위별로

기계와 전기분야 등 모두 6개의 정비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포스코의 일방적인 정비 자회사 설립 추진 행태를 비판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광양제철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와 매주 합동 집회 등을 이어왔다.

지난 5월 30일, 포스코는 광양시의회에서 열린 ‘포스코 정비 자회사 설립 관련 설명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렸다.

포스코는 이날 설명회에서 “근로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보다 나은 근로 조건, 보다 안정된 고용을 유지하겠다”며 ▲저임금 노동자 임금 상향 및 임금 하락 방지 ▲공정 한 보상기회 제공 ▲각종 복지혜택 등을 약속했다.

광양=조순희 기자

또한, 기존 협력사와 거래하는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를 파악해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것과 엔투비 구매 통합 비직용 등 향후에도 지역 소상공인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상생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 설명회에서 광양시의회는 물론, 경제단체, 언론인들에게 정비 자회사 설립 후 추진할 지역 경제와 관련한 각종 사업에 대해 “저희를 믿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되풀이했다.

포스코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 15만 광양시민들에게 철뚝같이 약속한 사안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제대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위기가구 제보” 담양, 민원특 확대 운영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앞장

담양군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담양군 민원특’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했다.

담양군 민원특은 주민의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개설된 신고창구(카카오톡 채널)로, 다양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민원특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기동대 등 지역 내 인적안전망 위기가구 발굴단 1300여 명에게 민원특 가입을 독려했다.

담양=조순희 기자

채널에 가입한 위기가구 발굴단은 1대 1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위기발굴단의 신고 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자가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맞춤형 상담과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면 적극 활용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 장애인 재활자조모임 운영 성과 높아

매주 금요일 ‘두메꽃’ 운영... 85% 만족

순천시는 장애인의 공통적인 문제와 서로의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재활자조모임 ‘두메꽃’을 운영한 결과 85%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의 긍정적인 변화, 사회생활 도움 여부, 서비스 적합도, 일상생활 도움 여부를 묻는 답변에 75% 이상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조모임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며 장애인 중 자택에서 함께 재활하고 있는 시민 10명을 모집하여 지난 3월부터 8주 과정으로 매주 금요일에 운영된다.

작업치료사, 간호사, 라탄강사, 원예치료사 등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함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재활운동, 풍선배구, 보드게임, 건강축적 및 상담, 지점토 공예 활동 등 소집단그룹 재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로 가족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데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재활의지를 높이는 시간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나가 장애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재활 자조모임은 지난 2일부터 8주 과정으로 10명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061-749-69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조순희 기자

장성, 고향사랑기부제 ‘아이디어 공모’

청소년 육성·문화·주민복지 증진 등... 전 국민 대상

장성군이 오는 7월 6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다.

분야는 △사회적 취약주민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지증진사업이다. 전국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장성군 누리집, 전자우편 및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모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 결과에 따라 10~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을 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기부로 조성된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사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제안 바란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받는 제도다. 장성군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별초 대령 서비스 이용 할인권, 설이한 명장 맞춤형 목공예품 등 차별화된 담례품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오는 7월 15일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성=심재식 기자